

정권 재창출 걱정 속 자영업자 과감한 지원 한목소리

국회의원이 전하는 설 민심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

현대산업개발 무한 책임 요구

민주당 지지 예전같지 않아 우려

광주·전남지역 설 연휴 민심은 '더불어민주당' 이 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연휴 이후에 반등할 수 있을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됐다.

2일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들은 "진보 진영 유권자들이 결집해 이 후보 지지율의 상승세로 이어지길 기대하는 지역민이 많았다"고 입을 모았다. 정치 현안보다는 "코로나 19 장기화에 따른 서민 고통과 화정동 아파트 붕괴 사고 등 지역 현안에 대한 요구도 이어졌다"고 전하는 국회의원도 많았다.

민주당 송갑석(광주 서구갑) 광주시장 위원장은 "지역민들은 경험이 풍부한 이재명 후보의 당선을 희망했다. 방역과 민생, 국방, 외교, 청년, 미대산업, 지역균형성장 등 당면한 현안과제를 이해하고 해결할 수 있는 인물이 국정을 운영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고 소개했다.

민주당 윤영덕(광주 동남갑) 의원은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은 정부가 과감하게 지원을 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았다"며 "코로나가 심각하다 보니 대선 분위기도 뜨지 않는 것 같다. 예전과 달리 20~30대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지지를 많이 하는 것으로 나오는 데, 그래도 투표장에 가면 전략적 선택을 하지 않겠느냐는 말을 많이 하더라"고 전했다.

같은당 이기호(담양·함평·영광·장성) 의원은 "호남 유권자들은 결국 대선에서 정권 재창출을 바라고 있지만 현재 지지율을 보면 10%P 가량 덜 나오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실망과 이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판단된다. 민주당이 민심 속으로 더 파고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말했다.

코로나 19에 대한 지역민의 걱정도 컸다. 민주당 김승남(고흥·보성·장흥·강진) 전남도당위원장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올해 들어 광주·전남에서 오미크론이 확산하면서 이번 설 명절은 한산한 분



이용섭 광주시장(가운데)이 지난 1일 설 명절을 맞아 서구 노인복지시설인 뽕열요양원을 방문해 코로나19 방역 상황을 점검하고 요양보호사들을 격려하고 있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설 연휴 기간 목포시 평화광장 코로나19 선별진료소를 방문,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방역 현장을 둘러보며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있다.

위기였다"며 "대선과 지방선거가 함께 진행되면서 상대적으로 지방선거 예비후보자들이 선거운동을 하는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같은 당 이형석(광주 북구을) 의원은 광주 신축 아파트 붕괴사고와 관련해 현대산업개발의 책임과 정부 여당의 역할을 강조하는 목소리를 전했다.

이 의원은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는 현대산업개발에 무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여론이 많았다"며 "민주당에 대한 호남의 지지세가 예전만큼 강하지 않다는 우려도 있었지만, 코로나 위기 극복과 일상 회복을 위해선 유능한 대통령이 필요하고, 민주당 정부 재창출 여론이 강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농어민들의 살림살이 걱정도 설 연휴 화두 중 하나였다. 민주당 서삼석(영암·무안·신안) 의원은 "재래시장은 예전 수준으로 활기를 보였으나 쌀 시장격리 역공매 방식에 대한 불만이 팽배했고, 양파 가격 하락에 따른 비축분 및 조생양파 조기 폐기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컸다"며 "벼로 등 농자재 가격 상승에 올해 농사를 걱정하거나, 소규모 어민들의 어로행위에 대한 과도한 단속에도 불만이 많았다"고 밝혔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전통시장 애로 듣고 복지시설 위로...선별진료소 코로나 대응 점검

이용섭 시장·김영록 지사
휴일 없는 분주한 설 연휴

이용섭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는 설 연휴 기간 확산일로로 치닫는 코로나19 대응 현장과 경찰 및 소방관서를 찾아 공동체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이들을 격려했다.

이 시장은 지난 1월 29일부터 2월 2일까지 전통시장을 비롯한 코로나19 방역 현장, 지역안전 대응 현장 등을 차례로 방문해 설 명절 종합대책 추진상황을 점검·격려했다.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 발생 이후 21일째 24시간 속식을 해결하며 현장에 머물고 있는 이 시장은 설 연휴 기간 말배우·양동시장을 찾아 상인들을 만나 격려한 뒤 애로사항을 들었다. 이어 시청 선별검사

소와 남구청 선별진료소, 제2호 생활치료센터를 방문해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코로나19 대응 상황 등을 살폈다. 복지시설인 뽕열요양원과 신애원을 찾아 코로나19 집단감염 차단을 위한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하고 감사인사를 전했다. 이 시장은 특히 설날 당일에는 (사)광주시 자원봉사센터 소속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 수습현장에서 구조대원 등에게 떡국과 주먹밥 등을 전달하고, 안전한 수색·구조 작업 등을 당부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설연휴 기간 확산일로로 치닫는 코로나19에 대응하고 전통시장과 사회복지시설 등을 돌며 지역민심을 살피는 데 주력했다.

김 지사는 연휴 첫날인 지난 29일 장성 활동시장을 찾아 전통시장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방역상황을 점검했다. 영광 효사랑노인센터와 무안

진성원을 찾아 위문하고, 나주소방서 빛가람119 안전센터를 찾아 현장 근무자들을 격려했다. 이어 30일에는 고흥 읍내 파출소와 보성군 보건소를 찾아 연휴에도 쉬지 못하고 현장 근무에 나선 경찰관, 코로나19 선별진료소 대응인력을 격려하며도 민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설 전날인 지난 31일에는 22개 시·군과 긴급방역 대응회의를 개최한 데 이어 목포 평화광장 임시 선별진료소를 찾아 의료인력 등 방역관계자를 격려하고, 확산세 차단을 위한 총력 대응을 당부했다.

설 연휴 마지막 날인 2일에는 도청사로 출근, 김부겸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화상 회의에 참여하는 등 코로나 대응에 공을 들였다. /박진표 기자 lucky@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이재명측 "지지율 정체기 끝나고 조금씩 반등"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측은 이번 설 연휴를 기점으로 그간의 지지율 정체기가 끝나고 상승 추세로 전환하고 있다는 기대 섞인 분석을 내놓았다. 이에 남은 한 달여 동안 이 후보의 강점을 부각하는 전략으로 이번 대선의 최대 관건인 중도·부동층의 표심을 공략하는 데 온 힘을 쏟을 방침이다.

선대위 총괄본부장을 맡은 이상호 의원은 2일 여의도 당사 브리핑에서 "설 연휴 직전부터 이 후보의 지지율이 조금씩 반등한다고 판세를 분석하고 있다"면서 "어느 후보도 확실한 우세를 점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추세선으로 보면 이 후보의 지지율 반등세가 뚜렷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에 선거일까지 한 달여 남은 기간 이 후보의 강점을 최대한 부각하는 전략을 펼칠 방침이다.

노웅래 민주당연구원은 통화에서 "정책과 공약을 많이 내놓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제대로 먹힐 수 있게 질적으로 승부해야 한다"면서 "부동산 문제 등에서 중도층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태도 변화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상대 후보를 노린 '네거티브'는 자제할 방침이다. 강훈식 선대위 전략기획본부장은 기자들에게 "네거티브 선거 운동은 하지 않을 것"이라며 "작년 서울 시장 재보선 때 (오세훈 후보를 상대로 제기한) '생태탕'의 경향이 뼈아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시·도지사, 교육감 예비후보 등록 이틀째...교육감 후보 각 1명 등록

시의원·시장 2월 18일부터

군의원·군수 3월 20일부터

6월 1일 치러지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지난 1일 광역단체장, 교육감 예비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120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했다.

광주·전남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6·1 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 이틀째인 2일 현재, 광주에선 이정선 전 광주교대총장, 전남에선 김동환 광주전남미래교육희망포럼 대표가 각각 시교육감과 도 교육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게 되면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명 명함 배부 ▲여객기 또는 표지물 착용 ▲선거구 내 세대수의 10% 이내에서 예비후보자홍보물 작성·발송 등을 할 수 있어 출마 예정자들이 본격적으로 선거운동에 나설 수 있게 된다.

예비후보자 등록 개시일은 선거 별로 다르다. ▲광역단체장과 교육감(2월 1일부터) ▲도의원(지역구), 시의원(지역구) 및 시장 선거는 2월 18일부터 ▲군의원(지역구) 및 군수 선거는 3월 20일부터, 후보자등록 신청개시일 전일인 5월 11일까지 관할 선거구위원회에서 등록할 수 있다.

다만 3월 9일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어 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자는 대선까지는 많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이 초박빙 구도로

흐르는 대선에 전념하기 위해 지방선거 출마자들의 예비후보 등록을 대선 이후에 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민주당원이 예비후보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당 검증위원회의 자격 심사를 거쳐야 하는데, 심사 일정도 대선 이후로 연기했다. 민주당 출마자들은 일단 대선까지는 선거운동을 접고 대선 이후에 검증위의 심사를 받아 예비후보 등록을 할 계획이다.

민주당 텃밭으로 여겨지는 광주와 전남에서는 민주당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인식이 팽배한 탓에 민주당 출마자들이 예비후보 등록을 하지 않는다면 지방선거 분위기는 표면적으론나마 대선 성적표가 나올때까지는 잠잠해질 것으로 보인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사랑과 감사의 67년
1954 ~ 2021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Passion Vision Truth

열정
꿈
진리로 흥망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2022학년도 광신대학교 학부 신·편입생모집

학부 정식모집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모집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계열	학 과	모 집 인 원	
		정 시	정 원 외
인문사회	신 학 과	31	
	한국어교육학과	2	
	복지상담융합학부	19	
사범	유아교육과	6	
	예능		
	음악학부 ·음악학 전공 ·실용음악학 전공	12	
총 계		70	

※ 신학과는 군중사관후보생(군중장교) 선발시험에 응시 가능.
 (합격시 학부 4년, 신학대학원 3년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면제, 기숙사비 면제)
 ※ 한국어교육학과는 한국어 교원자격증(2급)을 취득할 수 있음.
 ※ 복지상담융합학부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건강가정사, 평생교육사, 상담심리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유아교육과는 유치원 정교사(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학부 편입모집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계열	모집학과	모 집 인 원	
		정원내	정 원 외
인문	신 학 과	○○	○
		○	
사회	복지상담융합학부	○○	○
사범	유아교육과	○	○
예능	음악학부	○○	

※ 우체원고시 양성
 관련학과 전문학사(학위
 소지자 편입학(3학년)

▶ 전형일정
 · 원서접수: 2022. 1. 10(월) ~ 1. 21(금)
 · 전 형 일: 2022. 1. 25(화)

입학문의 ▶ 학부 062) 605-1114 / 대학원 062) 605-1115

1000명이 있는 대학 · 인재를 주는 대학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백제로 36